

‘공영재단 건설’ 전진과 퇴보 사이

재단공영화 VS 구재단 복귀

공영재단 건설을 위한 험거운 여정

우리 학교는 98년 이후 현재까지 정 이사장이 아닌 임시 이사장이 운영하는 관산 이사 체제이다. 98년 당시 박승준 재단장부 이사는 △공공금융 △교수·직원 △학생 △학사행정 △연구 △기타 등의 비리를 학교 구성원(학생·직원·교수)이 파악하여 박승준 이사 퇴진 운동을 벌였다. 이것은 비리 재단 퇴진 운동으로 확대

됐다. 결국 이숙경 당시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회 전원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라는 조치를 통해 구재단은 퇴진하게 된다. 이 때가 98년 6월이었다. 한달 뒤 교육부에서는 임시 이사를 파견하였고 12기 변형은 재단이사장을 거쳐 현재 3기 홍익식 재단이사장이 올해 말까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관산이사체제는 대학운영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학교운영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관산이사체제는 임시 이사장이기 때문에 학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 즉, 정 이사장이 구성되어야 대학이 주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학교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작년 10월 학교 구성원이 소집한 '재단 발전 위원회'가 소집과 공영화, 기업영양, 국영 회의 3가지 안을 놓고 3개월 여 논의한 결과 공영화 형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재단 발전추진위원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공영화 형태를 논의하려 했으나 학내 일부 세력의 방해로 자주 지연되었고 올해 5월에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재단발전추진위원회의 소집이 늦어짐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추진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각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재단 발전추진위원회'를 '이사추진위원회'로 전환했다. 당초에 학생·교수·직원·동문이 각각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으로 합의했으나 현재는 구성원 3주제(학생·교수·직원)가 이사 후보 23명을 관산이사회에 추천한 상태다. 관산이사회는 이 중 9명의 후보를 선정하여 교육 인적 자원부(교육부)에 최종 추천을 하게 된다. 교육부가 이사 후보들을 승인하면 우리 학교는 공영재단이 설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3월 1일 이숙경 전 이사장



지난 2월(목) 교육부 앞에서 구재단 복귀에 반대하는 항의 방문 모습이다.

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철폐 취소 청구소송'을 내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사립학교법 상 관산이사체제 시행 후 2년 뒤에는 구재단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발제되어 있기 때문에 구재단은 법적상 많은 유리함을 지니고 있다.

최근 구재단과 교육부가 4:2:2(학교:교육부:임시이사:설립자측)의 방안을 합의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이사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임시회 구성 방식과는 달리 학내 구성원이 배제된 채 이뤄졌기 때문에 구성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총학생회장 유복재(사회·신문방송 96)은 "4:2:2의 방안이 교육부나 구재단 중 어느 쪽에서 먼저 제의했는지 알 수는 없다"며 "이 방식은 설립자 측이 추천한 2명의 기업인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1명은 직접 구재단 측이 선정하기 때문에 구재단의 영향력이 남아있게 된다. 이 방안은 학내 구성원을 무시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사무국장 김은주 씨는 "교육부에서 4:2:2의 방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다. 이 방안은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운영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외대 구성원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 같아 신위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수협의회 회장 변해철(법학과)교수는

"4:2:2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없기 때문에 아직 합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하며 "내년이 개교 50주년이기에 때문에 법안정당화 등을 통해 학교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4:2:2의 방안이 있다면 교육부는 남독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반대한다"고 전했다.

즉 학내 구성원은 이사추진위원회에서 공영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구체적인 구성 방안까지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반된 내용의 사항을 교육부와 구재단의 합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제 2의 사유회'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구재단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결국 98년도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총학생회는 적극적으로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 21일 교육부 청문회를 통해 4:2:2의 방안을 규탄하고 개강 후에는 과 단위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98년 투쟁의 일례로 보았듯이 또 한번 학교 구성원의 힘을 모아 공영 재단을 건립할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고창영 기자
cha8272@hanmail.net

98년을 말한다

지난 98년 우리 학교는 외대구성원 전체의 힘을 합쳐 구재단을 물리쳤다. 이숙경 이사장과 박승준 전무이사로 구성된 재단은 온갖 비리로 얼룩져 있었다. 당시 박승준 전무이사는 △공공금융 △교수·직원 △학생 △학사행정 △연구 △기타 등의 비리에 대해 재정에 구멍을 냈다. 학생들은 초기에 이숙경 이사장과 손을 잡고 '박승준 퇴진 운동'을 중심으로 투쟁하였다. 당시 초반의 재단투쟁은 학생들의 문제제기보다는 재단 내부분열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이숙경 전 이사장은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와 사립사육을 채우기 위한 세력이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3, 30만원)를 발표한 지 이틀만에 이를 번복함으로써 오히려 재단의 완전한 개혁을 위한 살마리를 제공했다.

학생들의 투쟁이 정점에 달한 것은 3주일에 걸친 총파업이었다. 75% 투표율과 80%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로 가장 높은 단계의 투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총파업은 성사였다. 게다가 교수와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단퇴진운동에 더욱 힘이 더해졌다. 이는 대학이건 교수와 직원이 재단투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후 박승준 전무이사는 결국 △법무상 행정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 후 교육부는 이숙경 전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이사들에 대해 승인취소처분을 내렸고 변형운 씨를 이사장으로 하는 관산이사를 파견했다.

강경신 기자 shin118@hanmail.net

어두운 곳을 밝히겠습니다

민족민주연론
외대학보

뜨거운 감자 공영화, 껍질을 벗기다!

다른 학교는...

또다시 분류가 시작되는 덕성여대

98년 이후 잠잠하던 재단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이윤인 총, 관선이사제를 유지하며 공영화를 추진기로 한 기존의 합의된 사항과 이에 반하는 일부 의견 사이의 팽팽한 대립이 그것이다. 그럼, 이쯤에서 기존의 합의된 내용은 무엇이며, 공영화란 어떤 것인지 뜨거운 감자의 껍질을 벗겨보자.

02년도 기본 합의사항이란 무엇인가?

지난해 2학기 학생, 교수, 직원으로 구성된 재단발전위원회에서 향후 재단의 발전방향으로 공영화를 추진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본합의의 결정이후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은?

지난해 12월 공영재단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재단발전추진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공영화 반대 세력과 의견차이로 03년 5월이 되어서야 소집됐다. 이 자리에서는 명의 재단이사 추천에 대해 학내 구성원

(학생, 교수, 직원, 동문)이 심사하여 추천한다는 내용의 기본 합의를 마쳤다.

현재 불거지는 문제는 무엇인가?

공영화에 대한 기본 합의를 마친 상태지만, 일부 위 합의에 반대하는 측은 구재단 추천에 의한 1인, 교육부 추천에 의한 2인, 구재단 추천 기업인사 2인, 학내 구성원에 의한 추천인사 4인이라는 재단 공영화에 대한 의지에 역행하는 사안을 제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공영화란 무엇?

공영화란 학교를 특정개인에 의한 사적 소유의 개념이 아닌, 교육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사회 공공의 소유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학내 구성원에 의해 공영재단의 이사로 추천된 사람은 어떤 인사들인가?

현재 스물세명을 추천한 상태이며, 언론계, 기업인사, 동문 등 각계의 명망가들을 이사회에 추천한 상태이다.

재단의 공영화, 기업형립, 국영화 이 세가지 사안에 대해 재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때 공영화

가 최선의 선택인가? 외대의 문제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때문에 공영화는 재정적 측면 이외의 여러 측면을 고려해 선택된 사항이다. 하지만, 공영화된 재단의 투명한 수의사업

경으로 참출한 이익을 학교에 투자한다면 외부의 투자유치를 꾀할 수 있을것이란 밝은 전망이다.

전영희 수습기자
mumo101@hotmail.com

재단발전위원회 결의안

1. 외대가 지금의 시점에서 추진해야 할 재단발전의 기본공격은 공영화행태로 한다.
2. 외대발전을 위해서는 재정투자가 절실하다. 투자의지와 재정능력을 갖춘 우량기업과의 합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 외대의 특성상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가 긴요하며 또한 가능하다. 학과별 국책화 또는 부문 국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도 관학 또는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공조를 모색한다.
4. 재단발전위원회에서 도출된 합의단일안은 구재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단발전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
5. 이상의 합의안을 전체 교수회의에 회부한다.



덕성여대는 사립대학 재단의 정황에 맞서 학생, 교수, 직원 등문이 총망라해 12년간 대학 민주화 투쟁을 벌였던 대학이다. 재단 이사장의 지나친 학사간섭에 의해 '한상권 교수 재임용 탈락' 사건으로 시작된 덕성여대 사태는 교수와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계속되면서 교육부 설득에 의한 재단측의 이사진 전면 교체 조치가 이루어지게 됐다. 그 결과 지난 2001년 10월에 4명의 관선이사사가 파견되었고, 그 해말 당시 교수협의회장인 신상진(현총장)교수가 총장직무대리로 이사

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대학분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실마리를 찾고 있던 덕성여대에서는 논란이 된 것은 총장선출과정에서 불거진 '담합 의혹'이다. 더욱이 신총장이 당시 총장선출과정에서 구재단의 지지를 받아 최종 당선됐다는 점이다.

최근 신총장은 교협 활동과 관련, 지도부에 경고장을 보냈고 이에 교협 측은 지난달 19일부터 교내에서 1인 시위를 가지는 등 총장, 교협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박은희 기자 ph1206@hanmail.net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공영재단 구성하고

“사립학교법, 재단시유화는 부추기고 공영재단은 가로막고”

최근에 우리학교에서 구재단 이사회의 학내 복귀 움직임과 관련해 다시한번 사립학교법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사립학교법이란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세우는 대학 등 민족교육 즉, 사학을 일소시키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사립학교령에서 나온 것이다. 그후 정치권의 개입으로 개악되면서 지금의 사립학교법이 된 것이다.

사학을 규제하는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에는 사학의 운영에 있어 학교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불과한 것으로 돼 있는 반면 재단이사회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해 대부분의 사학문제가 이사회의 비리와 정황에서 비롯됐다.

우리학교의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재단이

사회에의 비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체적인 독소조항을 살펴보면 교원의 임명권을 이사회가 가진다는 조항과 더불어 이사회의 구성에 친족관계 인사의 이사회 참여를 3분의 1까지 허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회의 권한은 재단의 조직적 부정부리를 가능케 하고, 사학비리의 한 핵심 교수채용, 재임용 관련 비리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또한 비리가 발생한 학교에는 교육인적부처 원부 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파견할 수 있는데 임시이사(관선이사)의 재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임기에 제한이 없던 것이 99년 개정된 것으로 임기의 제한으로 파견된 임시이사들

의 책임감 상실과, 별문제 없이 임기만 채우고 나가는 무사안일주의를 낳게 된다.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로서 징계를 받은, 즉 사학비리 당사자가 처벌 후 2년이 경과되면 다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비리당사자들이 다시 복귀하여 비리가 재발되는 부패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우리학교의 경우에도 구재단측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관선이사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관선이사 승인 취소처분 행정명령 소송을 제기하고 재단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짚어본 몇가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 개정되어야만 민주적 학교운영이 실현될 것이며 부패방지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기에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성 정수의 2분의 1이상을 학내 구성원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자는 공익이사제도의 도입 △친족관계 인사의 이사회참여를 5분의 1이하로 낮추는 방안 △이사장 측근 중심의 인적구성을 막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교직원 임용제도를 공개화 공영화 △사학비리 당사자의 학교복귀를 10년 이상으로 금지 △임시이사회의 2년 임기와 1번의 연임이라는 제임기간을 비리사학에 의한 학내분규가 가려앉아 학교운영이 정상화될까지 임시이사가 재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제기되고 있다.

이혜상 기자
poteau84@hanmail.net

공영재단 구성의 주체는 외대의 구성원들 !!

시민 대학교로 나아가는 상지대



상지대는 구재단 측이 또다시 대학복귀 시도를 하고 있는 대학 중 하나이다. 설립자가 중간에 바뀌었고 대구모의 학내분규도 있다가 일어났다. 93년 당시 이사장 김문선씨는 부장임학과 관련된 금융수수와 대학 도서관 신축 공사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그로 인해 상지대는 관선이사사가 파견됐다. 그러나 문제는 출소 후에도 재단에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매년 복귀시도를 강행한 데서 비롯됐다. 그렇지만 대학 구성원들의 반목을 사면서 진행했던 복귀 시도는 매년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김씨는 법적으로 재단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법원판결로 마무리

했다. 최근 김씨가 대학시설 부지 내 '사유지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의 사재민으로 토지구입을 했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한, 김씨가 주장하고 있는 대학시설 내 '사유지' 반환은 법적, 도덕적 테두리를 넘어서 요구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듯 상지대학교는 재단화된 투쟁 이후 '더이상 상지대에 관선이사 파견이 필요 없다'고 판결된 상지학원 임원(경이사) 취임승인신청가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학이 승소하면서 추진중인 대학운영방식인 시민대학으로서 나가기 시작했다.

박은희 기자

ihufsan
나기 만드는 인바나대학

함께 만들어가요

WWW.

ihufsan.
com

인터뷰 - 대구 U대회 동행 취재기

‘하나되는 U대회 그 속의 외대인’



세계대학생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사상, 인종, 종교, 민족, 문화 등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려는 인류의 열원을 담은 녹색 문화 제전이다. 'Dream for Unity' 하나가 되는 꿈'을 주제로 한 세기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남북의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전장으로 전 인류의 하나됨을 감동적으로 실현했다.

세계 여러나라의 대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세계 민족축제'에 우리학교 출판학과가 대표로 참여해 대구현장에서 만나보았다.

편집자

흔 젊음의 축제인 2003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지난날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인류의 열원을 담은 문화제전이라는 대회주제에 걸맞게 역대 최대규모인 170개국에서 8천 500여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해 그 열기가 뜨겁게 타 올랐다.

특히 북한의 참여는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대회의 의미를 더 높였다. 'U대회의 행사 중 하나인 세계민족축전에 참가한 우리학교 출판학과와 민족속 소모임 '마주트'가 대구에서 만나보았다.

“우리가 만드는 U대회”

대구에서 만나본 우리학교 공연합창단 폴란드와 마주트'가 단원들은 대구의 독특한 더

위에 조금은 지쳐있었지만 공연에 대한 기대와 열정으로 가득차 보였다.

이하나(유류업·폴란드어 03)은 “이렇게 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않고 또 우리학교 대표로 참여하잖아요”라며 이번 행사에 참여할 자부심을 한껏 드러냈다.

폴란드어과에 대한 애정도 남다른 이보름(03)은 “U대회가 세계 각지의 관심을 받고 있는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폴란드를 일반인들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덧붙였다. 마주트카의 대표이자 이번 공연의 주체이기도 한 조창호(02)군은 “이번 공연이 마주트카로서는 무대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또 세계로 나아가는 교류의 장이 되는 무대에 서게 되어 기쁘요”라며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폴란드 민속춤 공연은 모든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관심과 큰 호응을 얻었다. 최미애(대구여고 2학년)는 “공연이 재미있고, 평소 함께 접할 수 없었던 다른 나라 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U대회를 잘 치러서 대구를 세계로 알리고, 이번 대회를 통해 남북이 많이 가까워져 통일에 한발자국 나아갔으면 좋겠어요”라고 대구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를 관람한 소감을 전했다.

공연에 마치고 내려온 마주트카 단원들은 “공연, 멋있었어요”라고 묻기도 하고 “실수 많았죠? 제가 편이냐 했어요”라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외상이 참 어수룩한 막에는 직접 폴란드 민속춤 사진을 보고 재밌는 것이라며 이번 공연을 위해 많은 준비가 있었음을 내치지 시켰다.

이하나 양은 “관객들이 오늘 공연에서 이 폴란드 의상을 보고 폴란드라는 나라에 대한 기

역을 간직했으면 좋겠어요”라며 폴란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보름양은 “무엇을 남치속에 주축과 참여함에 대한 배려부족으로 무척 힘들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큰 대회가 좀더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있었으면 해요”라고 전했다. 또한 조창호군은 “다른 외국어대나 타과의 참여가 없는 점이 아쉽네요”라는 데도 다른 세계대학생들과 직접적인 교류의 장이 없어 아쉬워요”라고 U대회의 기획력 부족을 지적했다.

“남북이 함께 하는 U대회”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여로 이번 U대회는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과 함께 진정함의 의미의 전 세계대학생 축제의 장이 됐다.

북한선수 및 응원단 참여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그들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유롭게 만나지 못한다는 현실이 참 아쉬워요”라는 이보름양의 말은 분단된 우리의 현실을 다시금 느끼게 해 주었다.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입장하는 남북의 모습에서 이번 U대회의 의미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듯 해요. 북한이 대회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참 큰 성과라고 생각하며 통일이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조성된 남북의 화해무드가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 더 나은일이 생겨 원점으로 돌아가고요 하는데, 이번에도 이런 우리의 노력에 정부나 다른 불이스러운 일로 옮겨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며 마지막 말을 맺었다.

이혜상 기자
poteau84@hanmail.net

해설기사 - 주한미군 재배치와 스트라이커 부대

왜 사격장에 뛰어들었나?

지난달 13일 대학생 12명이 댄스로 포진

로드리게스 사격장에 뛰어들며 스트라이커 부대의 한국 훈련을 반대하는 시위 도중 구속됐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시위를 주도한 한총련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총련 학생들이 구속을 각오하고 기습한 스트라이커 부대의 실체는 무엇인가?

미국 전략악화 아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는 미국의 핵심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취해야 할 준비태세를 크게 3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전 지구적 미사일 방어 체계(MD SYSTEM) 구축. 둘째, 미군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첨단 무기개발, 셋째, 현재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을 효율적으로 배치, 지상군을 축소하고 첨단 무기의 활용으로 전쟁시 최대한 빠르게 작전을 침투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전략적 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두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미국 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용산 사령부의 일부 병력을 오산, 평택 등지로 이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을 간축할 예정이다. 이미 알려져 있던 북은 휴전선 부근에 1만 5천기에 달하는 아포를 배치하고 있다. 이 아포의 사정거리는 수만 인치에까지 도달하고 있으며 일제히 폭격이 시작되면 시간당 50만발의 포탄이 미군 기지를 뒤덮는다. 특히 한강 이북에 있는 미군은 북 아포의 집중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이 선제 공격을 개시하면 곧 북의 아포들이 일제히 폭격을 개시할 것이고 미 주력인 용산 사령부의 방어벽은 전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부시가 대북전제공격을 개시하려면 현재의 미군 배치는 오히려 전쟁의 걸림돌이 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 아포 사정권 밖인 수원 이남지역, 평택, 오산 등지로 미군을 재배치하려 하고 있다. 결국 기습 주축에야할 것은 이것이 미군 전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스트라이커 부대 첫 훈련지 - 한국

두 번째로 미국은 이와 같은 전략적 불균형을 바로 신속대응인 스트라이커 부대로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 스트라이커 부대는 미 육군이 분장지역에 신속히 파견해 전쟁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된 신속기동부대이다. 스트라이커 여단은 공군 수송기를 통해 세계 분쟁지역에 6시간 안에 투입될 수 있다. 즉 전쟁이 시작되면 초기에는 한국군을 총알받이로 내세워 북의 공격력을 소진시키고 개전 2~3일 안에 동북아 주변의 미군을 신속히 이동시켜 북과 전면전을 개시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전쟁 사나리기가 현실화되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위험한 발상 속에 탄생한 스트라이커 부대의 첫 훈련 대상지가 한반도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군사령부는 스트라이커 1개 소대가 참살후 처음으로 내달 경기도 포천 양평 사격장에서 실사훈련을 포함한 ‘한국지형 익하기’ 목적의 군사훈련을 지난 1일부터 실시했다. 목적은 한총련을 지난 1일부터 신속기동부대인 신철은 미국의 새로운 북침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미국의 대북 공격이 임박해 있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논거리고 아동식 주한미군 재배치

한총련 통일담당 정책기획은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중히 따져 봐야한다. 미국은 이번 주한미군 재배치와 함께 지상군을 감축하여 현재 한반도에 있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여론과 반미 감정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미군의 일련의 행보를 이해한다면 그들의 행동이 ‘논 거리고 아동 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위해서 향후 주한미군이 철수된다하더라도 중국적으로 한 미 군사동맹의 과거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oedapress03@hanmail.net



“U대회, 저도 참여했어요!”

“제가 U대회의 한 장면을 장식했다는 사실에 뿌듯했어요.”

대구 U대회 행사 중 가장 장관을 이룬 것은 단연 대학생 1,200여명이 참여한 풍물제였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풍물계 1,200여명은 대구의 대위 속에서 국제보상공원에서 두류공원까지 약 3시간 동안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이곳에서 우리학교 풍물계 ‘달’의 세내기 유수영(서유림·영어 03)을 만나보았다.

3시간 동안 대구의 무더위 속에서 달진하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기운대 유양은 끝까지 볼을 연주하며 풍물계에서 한 몫을 다했다.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에 유양은 “물론 힘들었고, 실내에서 연주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뜨거운 피악벌 아래서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대구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환호를 해주면 더위까지 잊게 되더라고요”라며 그 뿌듯함을 전했다.

그녀는 U대회를 위해 방학기간 중 2주 동안 선배들에게 전수를 받았다고 한다. “다른 친구

들이 영어공부를 하는 동안 저는 선배들에게 우리 가락을 전수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힘들고 짜증나기도 했었지만 오늘 그 재종들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라는 그녀의 말은 자신이 U대회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여는 유양에게도 가깝게 느껴졌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북측 선수단이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냥 기뻐요. 지금은 북의 이번 대회 참가가 앞으로 남북 관계에 더욱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에요”라며 U대회를 통해 남북관계의 화해분위기가 계속 지속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세계대학생한미단이 진행한 두류공원에서는 U대회의 인연을 기원하는 곳 한미당이 이어졌다. 곳 한미당에서 그녀는 북이 아닌 탑출으로 그 자리에 함께 했다. 덤실덤실 춤을 추고 있는 유양에게 어떤 것을 기원했는지 묻자 “발전이요. 그냥 세계대학생들 그리고 북한함자 자를 모두 하나로 아우러져 행사가 잘 치러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어요”라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곳 한미당이 끝날 때쯤 유양은 “유니버시아드는 대학생들의 축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행사가 대학생들의 힘으로 치러졌으면 하고요. 오늘 저는 비록 1,200명의 풍물계 중 하나였지만 제가 U대회의 한 장면을 장식



웃음을 지었다.

곳 한미당이 끝날 때쯤 유양은 “유니버시아드는 대학생들의 축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행사가 대학생들의 힘으로 치러졌으면 하고요. 오늘 저는 비록 1,200명의 풍물계 중 하나였지만 제가 U대회의 한 장면을 장식

했다고 생각하니 힘이 들기는 해도 마음이 뿌듯하네요”라며 대구 U대회 현장에서 보내는 대학의 첫 밤과 소감을 전했다.

김용훈 기자
oedae01@hanmail.net



소중한 꿈이 자라는 곳,
그 꿈을 지켜주는
철이 있습니다



거센 비바람 속에서 아이들 세상,
그 소중한 세상을 지켜주기 위해
피땀은 늘 같은 자리를 지킵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지켜주는 철,
철은 든든한 친구입니다.

posco
소라아래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kr

후자의 소리

글을 쓴다

지: 외대인(교수, 학생, 직원) 모: 주: 제한 일출 / 매: 2003 원고지 4면 1회 / 미: 매주 금요일 지정
투고방법: 학생기자(학생회관 2층) 방문 또는 전자우편 oodapress@thermal.net
제대학보물 꼭 읽고 싶은 부분은 미리 보는 것을 환영합니다. 본지는 편집을 위해 주필을
기초학선 본지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후자의 소리(후자의 소리)는 후자의 소리(후자의 소리)를 위한 것입니다.

아쉬움이 남는 U대회

2003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역사상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며 진행되고 있다.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말 그대로 아직 사회의 물에 들어 뜬 돌이 많은 순수한 청년들의 기지와 능력을 마음껏 자랑하는 곳이 아니다 한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유니버시아드대회의 많은 부분들을 망설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분단국가의 특정 때만 국제경쟁에서 힘을 잃지 않으려는 서로의 경쟁 심리에서 오는 것이지 참가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한 신경전부터 서로의 국가 경쟁력을 두고 금메달 경쟁을 벌이고 있는 듯 하다. 또한 TV나 뉴스에서 보여주는 시민들이 자제적인 봉사와 많은

노력과는 달리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기회로 삼아 한몫을 잡으려는 상충되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대회 초반의 진행과정 중 우리나라와 이라크의 태권도 경기와 있었다. 정발로 눈뜨고 볼 수 없고 이것이 점점 전 세계적으로 전파를 타고 나간다는 것이 부끄러움을 정도였다. 정확한 이라크선수들의 기적 그리고 독립국가에 대한 정당한 권리까지 없었다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스치듯 공격에 올라가는 포인팅. 우리가 오해를 속독하야 하고 사람들이 우릴 오해스럽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정말 고개를 푹 누를 수 없었다. 이런 마음을 더욱 심하게 한 건 그날 밤 뉴스에 나온 심판의 말이다. "한국 선수가 좀

소극적이긴 했지만 정수를 봐라 우리가 이긴 것이 맞지 않느냐" 정말로 어이가 없는 말이다. 한국 경기의 심판은 구심원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다. 플라톤의 아카데모스신의 영역에 세운 아카데메이아 이곳에서 많은 청년들의 심신을 수양하고 국가의 기반을 닦았다. 그런 정신이 깃들어야 할 우리의 대구 대회 그 정신을 다른 무엇인가로 인하여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상균

(정보산업공, 전자정보공학 07)

교양수업, 고등학교 수업보다 더 어수선해...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1학기를 보냈다. 원래 학교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즐겁고 보람찬 학교생활을 보냈고도 자부하지만, 가끔씩 학교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도 한다.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이다. 교양수업도 물론이거니와 전공 수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수업을 듣게 되면서 원하는 만큼 듣기가 힘들다. 원래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수업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그만큼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외국어를 특성으로 내세우는 우리 학교의 경우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수 정예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더 많이 습득하고 언어를 더 빨리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 들은 수업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솔직히 교양 수업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보다 더 어수선한 듯 하다. 사람들은 더 많이 읽고, 옮겨 다니는 수업 방식이 아

기한 결단인 듯하다. 전공 수업은 좀더 적은 인원이 수업을 듣기는 하지만 교수님과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지기에는 학생수가 너무 많고, 교수님들도 학생들에 너무 시달려서 결국 더 나은 수업을 기대하기 힘들고, 대부분은 수업을 대충 배우기 식으로 듣게 된다. 이러면서 수업 분위기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게 되고, 그만큼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기 힘든 것 같다. 교양 수업은 수업에 대한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학교를 졸업한 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처음에는 학생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셨으나, 워낙 많은 학생 수에, 진해 학생들이 의무적이거나 결국 강의만 하시기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항상 문제점들이 반복되어 오는 듯 하다.

이번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에서 수업의 수를 늘리고, 한 과목을 들을 수

있는 학생의 수를 적당히 줄여야 한다. 회화 수업에도 20명 이상이 한꺼번에 듣는다는 것은 수업 시간 도중에 졸음을 막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정말 그 수업은 시간 때우기, 학업을 위한 수업일 뿐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이다.

학교의 이런 노력 뿐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려 해도 학생들이 원치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이런 식의 방관은 좋지 않다. 대학교는 자신들을 키우는 곳이다. 단순히 학업을 위한 수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좀더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모두가 노력해야 더 나은 수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조현미

(서양·한국사 03)

대학생의 자유, 가치있게 사용해야

발해 70여일간의 긴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방학이 끝나가는 무렵이 되자 처음에 계획했던 일들을 실행한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이 더 많다.

70여 일의 길은 짧은 시간이다. 언제가 인생의 속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인생에도 속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사람의 인생 속도가 10대에 10km/h, 20대에는 20km/h, 30대에는 30km/h 이런 식으로 인생이라는 것이 달리는 자동차처럼 속도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속도에도 점점 익숙해지면 결국엔 무감각해져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차가 달리고 있다는 느낌이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흐르고 있는데도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의 속도는 다른 것 같다.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었을 때는 항상 일정하게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간 자를 학습 등으로 매일 틀에 박힌 생활을 했었다. 그런데 그 때는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 들었었다는 데 대학이 들어오자 시간이 너무도 빨리 흐르는 것 같다. 우리는 소위 대학생의 자유라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듣고 싶은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고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고 거기다가 수업에 빠졌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대학생의 자유라는 것을 너무 남용해서 귀찮은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다. 물론 각자가 생각했을 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주의를 살펴보면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평하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

람에 따라 그 시간은 정말 극적으로 소중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방탕에 흠여 사라져 버리는 먼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에는 예전에 갖지 못했던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

학원의 책임이 무뎠다는 상인이 되었다는 것과 대학생의 자유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젊음이라는 가장 큰 무기로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좀더 가치 있게 쓰고자 마음먹는다면 더욱 멋진 대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은종현

(동유럽·노어 03)

삼수생 새내기가 지난 한학기를 돌아보며

처음에는 대학생생활이 마냥 좋고 편할 것 같아도 생각해보면 막상 그렇지 않았다. 여러모로 예상보다 생각보다 많이 헤벌쭙아 하고 좀더 있고 멀리 내다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학기초에는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다. 삼 수를 하는 동안에 수능이라는 틀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있어서 보니 대학에서부터 자유가 익숙하지 않았다. 그저 놀고 먹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좀더 건설적으로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고 느껴졌다. 학기초에, 수강신청 기간에 친구들과 함께 시간표를 짜었다. 같이 들을 강의를 골랐다. 그런데, 막상 수강신

청 시간에 계획했던 과목을 거의 신청할 수 없었다. 며칠동안, 캠퍼스 앞의 매달려서야 몇 과목 신청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을 매 학기 마다 해야한다고 생각하니 아쉽했다. 물론, 학교의 여건상 그렇게 됐지만 조금 여유있게 수강신청을 했으면 좋았다고 느껴졌다.

수강신청이 끝나고 어떤 강의를 들을 때는 정말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큰 강의실이나 의자를 더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전공 수업 가운데 듣기가 힘든 강이 있었다. 인기 있는 강의의 학생 수도 많아서 들어 보기 힘든 강의였다.

그런데 앞에서 조금만 멀리쳐도 강의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일단은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업도 열심히 들었다. 그래서 강의 들을걸 포기한 적도 있었다.

학교 다니면서 느낀 점을 쓰다보니 두서 없는 글이 된 것 같다. 또, 마치 학교에 불만만 많은 것처럼 비추어 질 것 같기도 하다. 만족한 점도 많고 즐거운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 학교가 이런 점에서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어 보았다.

김민성

(상계재계 03)

면담

“우리가 6자 회담의 중심에 서야 한다”

북·미, 양측 입장 조율을 통해 합의점 찾아야



이상환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북한과 주변 4개국이 베이징에 모여서 북핵 문제를 다루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이 열린 것이다. 4개 강국을 늘 열두에 두게 된다. 좋은 실태 그러한 구도 속에서 우리 문제를 논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4월 베이징 3자 회담의 연속인 이번 6자 회담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 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3자 회담의 경우 미국과 북한의 이견이 중국의 중재로 하루

성 확보와 협상 진행으로 귀결되었는데, 여기에 한국과 일본 및 러시아가 참여하는 것이 6자 회담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회담의 중심에는 북한과 미국이 있었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우선 핵을 포기하고 핵사찰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변화가 없는 한 핵포기

와 핵사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안보무려 핵소를 위해 북한은 구축력 있는 불기침조와 체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불기침조와 체계를 대해 부정적이며 핵포기 시 안보무려 핵소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평행선 속에 있는 양측의 입장이 대화를 통해 향후 접점을 찾을 지가 미지수이다.

중국은 이번 회담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는 북한 핵개발을 지지하지 못할 경우 대만 등 주변국의 핵보유

도미노 현상으로 중국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가장 강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북한 핵문제와 함께 일본의 남치문제와 미사일 위협 제거 등 포괄적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러시아 역시 한반도 평화와 병행하여 북한과 안보무려 핵소를 강조하였다.

이번 6자 회담에서 표명한 우리의 입장은 어떠한가? 우리는 북한의 핵포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함과 아울러 북한의 안보무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일반론적인 입장이었다. 북한과 미국이 회담의 당사자로 부각되다보니 우리의 입장은 참가국의 하나로서 평가절하되는 모습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주요 목표인 주변국들과, 통일 그리고 향후 비핵화 통일 조국의 모습을 아울러 생각하는 우리는 그 목

표가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주변국들의 목소리에 묻혀서 회담의 진정한 주체가 되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남북관계와 주변국과의 관계는 연계되어 발전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관리하느냐가 한국과 주변국들의 담판과 제미어 이는 중요함이 해될 수 불가능하다. 주변국들을 배제하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의 도움을 받는 만큼 통일과 통일 후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차기 회담의 성과와 기대하면서 우리가 회담의 중심에 서는 모습을 그려 본다.

용인캠퍼스 예비교대입학과 안내

한도예비교대 입학 제 3호 1학에 의거 병행할 학생은 아래와 같이 작성예비교대입학과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예 ·

1. 선입학: 2003학년도 2학기 복학, 재입학, 재입학
2. 선입학: 2003. 8. 11 ~ 2003. 9. 15 까지
3. 선입학: 2003. 9. 15 ~ 2003. 9. 15 까지
4. 등록금: 2003학년도 2학기 등록금 15만원 (등록금 15만원, 등록금 15만원, 등록금 15만원)
5. 등록금: 2003학년도 2학기 등록금 15만원 (등록금 15만원, 등록금 15만원, 등록금 15만원)
6. 등록금: 2003학년도 2학기 등록금 15만원 (등록금 15만원, 등록금 15만원, 등록금 15만원)

2003. 9.

용인캠퍼스 직장예비교대 연대장

수배·연행으로 고통받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엄마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삭발뿐입니다

한총련 합법화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모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국의대학신문사는 정부의 합법화 결단을 촉구합니다.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전국대학신문 기자 선언문 중에서

외대화보 663

예비역! 그들을 바라본다



왼쪽부터: 신동엽, 박종익, 류제석 군

예비역... 가까이하러! 너무면 당신

예비역... 주위에는 많지만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비역들. 그러나 쉽게 가까워지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의 나이차이로 인한 세대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세대가 및 02학번과 03학번의 관심사와 비교적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또한 화합보다는 동지애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배들을 알 기회가 매우 적다는 요소도 서로를 멀어지게 한 원인이다. 이에 대해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 조진욱(상장·무예 97)군과 정성진(상장·경영 98)군은 "우리나 후배들이나 생각은 같지만, 술자리나 후배들을 보는 자리에서 군대를 다녀오지 전처럼 편하게 행동할 수는 없다"며 거리가 생기는 원

인적 원인을 꼽았다. 그리고 "우리들이 군대를 가보지 않은 선배들보다는 대하기가 쉽지 않고, 공통의 관심사가 적은 것 같다"며 "예전에 쉽게 했던 심거는 동담도 지금은 부담된다"고 밝히 군입대 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지난 2003년 9월 27일(수) 오후 5시, 서울배움터일 한 카페에서 예비역인 천동엽(정보산업공·전지정보공학 99)군과 박종익(정보산업공·전지정보공학 99)군, 그리고 류제석(사회·행정 98)군이 서로 커피잔을 앞에 놓고 물러앉아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엇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되는 질문에 천동엽군은 "나이차이로 인해서 취급이 달라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류제석군은 "군에서 재대하라고 나면 막상 아는사람이 적고 그래서 학교는 낯선 곳"이라며 "대학문화와 또한 조금씩은 변하고 그런점에서 2년의 공백은 큰 것 같다"고 밝혔다.

예비역은 이제서야 같이?

학내의 예비역들에 대해서 학생들의 몇가지 공통된 생각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비역들은 '이제서야'라는 것이었다. 장문

욱(사양·영어 03)군은 "군대를 다녀오면 아저씨라는 느낌이 생긴다"며 "군을 다녀오면 아는 이가 적고 취업에 대한 압박이 있는 상황이 어찌보면 모순을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박종익군은 "재대하에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충실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천동엽군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생각이 몇 개 더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김정진(중앙·이탈 03) 양이 말한 "예비역은 성격에 집착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천동엽군은 "나보다 어린 같은 학년 후배들보다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시작한 것 아닐까"라고 말했다. 류제석군의 경우에는 "당장의 취업문제로 골치거리이고, 그런 면에서 학점에 연연하는 모습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군대생활에 대해서...

"예비역은 상하관계의 엄격함이 느껴진다" 안수정(중앙·중국어 01)양의 말이다. 안수정 양은 그 대표적 예로 "특히 교수님을 대할 때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며, "교수님을 상관을 대하듯 깎듯이 대하는 모습을 종종 봤다"고 말했다. 장문욱(사양·영어 03)군은 "군대에 가서 눈치를 잘 봐야 살아남는다고 주위에서 많이들 얘기해준다"며, "눈치보게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군 문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류제석군은 "군생활이 계급사회이고 그러다 보니 위사관 눈에 안나려고 하는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재대하에도 나오는 것 같다"며, "교수



남에게 대하는 것도 그런 것의 하나일 것이다. 위사관 눈에 드는 기술이 군대를 다녀오면 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익군은 "기성 세대를 이해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군대"라며 "재대 후 학교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약간 어색하다. 서열의식을 비교적 장기간 접해보니 어릴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천동엽군은 "군을 재대하면 당연히 전배리가 높아진다. 모두 살아남기 위해서 당연히 눈치도 당연히 보는 것이고..."라며 쓸쓸했다.

후배들이 좀 더 다가왔으면...

앞에서 밝혔듯이 군을 다녀오면 알고 있던 사람을 학교에서 보기 쉽지 않다. 천동엽군은 "아예 학교에 적응 못하고 안 나오는 친구도 봤다"면서 안타까워했다. 박종익군도 "과에서 전배리의 성격이 좋아 살아남는 것 같다"고 했다. 류제석군은 "과활동 이외에 동아리나 학회에서 활동도 비슷하다"며 "그나마 좀 쉽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과 활동보다는 동아리나 학회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천동엽군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후배들이 먼저 살갑게 다가가고 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박종익군도 "나이들 예비역 쪽에서 먼저 다가가기는 힘들다"면서 후배들이 먼저 친근하게 대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류제석군 또한 "저로 의식하지 않고 허물없이 대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의 구성원으로서 예비역의 선배, 그리고 인제나 그들 같이 있을 후배, 서로를 이해하고 이어주는 마음으로 함께 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종익 기자 park84@hanmail.net

문화 캘린더

공연정보

피아노 앨범 발매 기념 단독 콘서트

매 : 2003년 9월 5일(토) 저녁 7시
2003년 9월 6일(일) 저녁 6시
곳 : 대학로 S1홀
주최 : (주)바다리 컴퍼니
티켓가 : 2000원 (VAT포함)

창간특별호 - 창간 속으로 돌아온 새

장르 : 무용·전통 예술
매 : 2003년 8월 28일~9월 31일
곳 : 문예진흥원예술극장

우동 한 그릇

부제 : 한 그릇의 애환
장르 : 연극
매 : 2003년 9월 10일~9월 28일
곳 : 소극장 김동수 동아리 하우스

김시인의 품바

부제 : 국가 기념의 정기 공연
장르 : 연극
매 : 2003년 9월 10일~11월 24일
곳 : 강릉문화 소극장
지유서 : 일반 - 15000원, 대학생 - 12000원

Magic On Ice 매직온아이스

장르 : 뮤지컬
매 : 2003년 9월 10일~9월 30일
곳 :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호텔 가리비홀

엘라구이다 2003

장르 : 뮤지컬
매 : ~9월 10일(월) 8시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5시, 8시 / (월요일 휴무)
곳 : 세종문화회관 엘라구이다 홀
가격 : 평일, 일요일 5시 50,000원 /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5시 50,000원

그리스(Greece)

장르 : 뮤지컬
매 : 2003년 9월 10일~9월 28일
곳 :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가격 : R석 - 5만원, S석 - 4만원, A석 - 3만원

책 소개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김주영 지음 / 문이당 출판사 / 8,000원

우리 시대 최고의 이야기꾼 김주영의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가 출간되었다. 출간된 이래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 온 이 장편소설은 1999년 6월에 스페인에서 출간되기도 한 작가 김주영의 자전적 성장소설로, 김주영 문학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비종지 없는 지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소설에는 이로새처럼 어린 시절의 편린들이 수채화처럼 담겨 있다. 어린 시절 길가는 길모퉁이들을 하나하나 돌아갈 때마다 나타나는 장면을, 인물들은 어린 아이의 눈을 통해 일련의 단상처럼 펼쳐진다. '나'와 '아무'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그려지는 이 작품은 김주영 문학세계의 근원지에 빛나는 보석과도 할 것이다. 독자들은 어린 시절과 시절 마음들이 이 작가의 작품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함으로써 그의 문학과 고향 정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독자들은 이 소설을 통해 전후 가난한 시절 마음의 애도 된 풍경과 미지의 세계를 통찰하는 소설의 섬세한 내면을 들여다볼 것이며, 그러면서 성장하는 인간과 본질적인 측면을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종이>와 함께 한국 소설 문학의 백미가 한결 성숙한 작가에 의해 다시 한 번 거듭나서 독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다.

오는 5일 러시아 예술제 열려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러시아예술제가 서울배움터 노어과 주최로 5일(금) 오후 6시와 6일(토) 오후 5시 양일간, 인문과학관 대강당에서 열린 예정이다.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이 행사는 노어과 학생들이 각자 공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어과 학생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뮤지컬로 진행한다.

러시아어로 공연되는 이번 뮤지컬은 한국인이 연애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가서 겪는 역경에 대해 다뤘다. 그밖에도 러시아 전통음악을 즉석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 러시아 기념품과 올랐 및 보드카 등을 판매하는 물

산전, 예술제를 준비하는 노어과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인문과학관 앞 분수대, 대강당입구, 인문과학관 2층에서 각각 펼쳐진다.

이번 예술제 협의회장 조주홍(사양·노어 98)군은 "올해가 노어과 생간지 50주년인 되는 뜻깊은 해에 개최하는 예술제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 것 같다.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시도 때문에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조혜원 기자 mutute84@hanmail.net

신 병영문화, 눈가리고 아웅?!

앞으로 육군장병들이 군대 내에서 언어폭력이나 비속어를 사용할 경우, 형사입건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육군은 최근 잇따른 병영 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7일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전국 각급 부대에 하달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분대장을 제외한 일반 병사들은 후임병에게 대한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일체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장군에게 관행으로 굳어진 후임병에게 상부부 시키기와 식기세척 강요, 열처리 등을 시키다

작발할 경우 형사 입건과 1~5년 징역형을 받거나 의술과 의복을 제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후임병에게 발레를 리본을 끌어오라는 시키거나 '복고 안아있어'를 장시간 열처리를 강요할 경우 사안이 따라 형사 처벌되거나 기본권이 제한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동명만도 못한 놈' '저는 팔뚝만 해서 하는 일' '그게 뭐냐' '초등학교는 재로 나왔다' 네 자리가 네 뺨을 가격된다 등에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신체부위를 비하하는 폭언과 욕설도 금지된다. 이와 이런 사례가 작발된 11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또한 병영 내 언어문화를 정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저속어와 은어, 군인간지 않은 비어, 잘못된 복병명 관행 근절책도 제시했다.

신병문화화를 위한 육군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지배적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천동엽(정보산업공·전지정보공학 99)군은 심한 불가능한 정책

이라며 이를 비판했고 박종익(정보산업공·전지정보공학 99)군은 "군에 있을 때도 항상 나왔던 이야기들이다. 그걸 문서화시켜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을 뿐이다"라며 이번 지시가 사실상 있다고 말했다. 류제석(사회·행정 98)군은 "진짜 문제는 위에 간부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다. 간부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현실회기 힘들다"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가운데,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혜원기자

mutute84@hanmail.net

